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페미니즘으로 읽는 광장
“성차별주의자를 탄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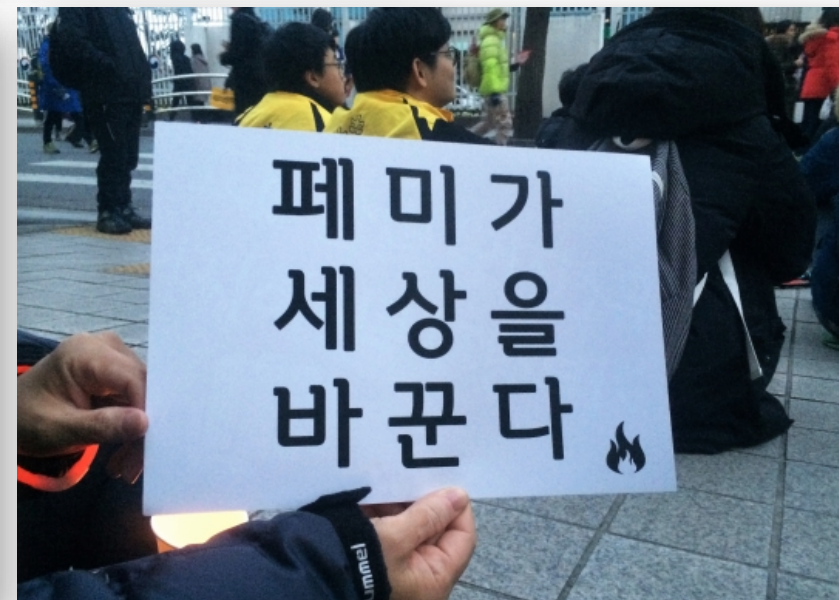
손희정 (프로젝트3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5년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2



새로운 시민 주체? - 촛불소녀와 페미존



“성차별주의자를 탄핵하라”



그런데 - 3.8 세계 여성의 날

5

사회 : 사회 일반 : 여성계 게시판

16시간마다 1명의 여성 살해 혹은 살해 위험...공식 통계도 부재

김세원 기자

입력 2025.03.07 10:38

한국여성의전화 '2024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
지난해 애인·남편에 목숨 잃은 여성 최소 181명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555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4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살해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세원 기자

떠난
멈춰

생전
끝까지
약속

밀알

자세

그런데 – 3.8 세계 여성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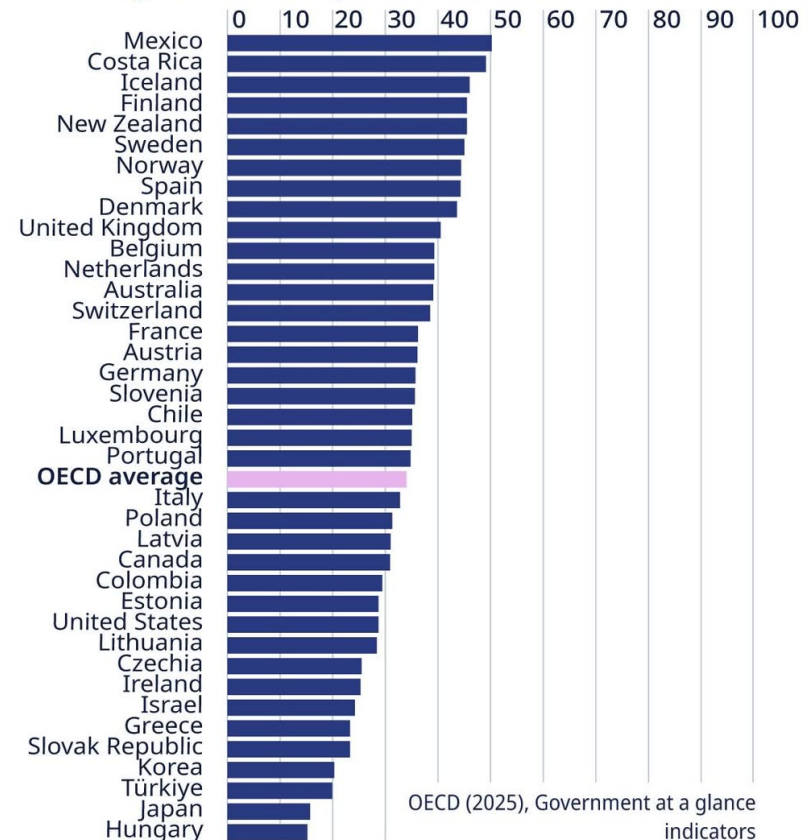
6

Gender pay gap in OECD countries



Women represent just 34% of parliamentarians in OECD countries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 2025



3.8 세계 여성의 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퇴진은 반여성 정치의 퇴진이며, 성평등 정치의 귀환이 곧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1만 2510명이 동참

정치인, 여성학자, 여성청년농민, 해직교사, 말벌동지, 이주여성, 퀴어부터 원로여성운동가, 교수, 여성단체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21명의 여성이 단상에서 함께 선언 낭독

3.8 세계 여성의 날



“페멘은 페모내셔널리스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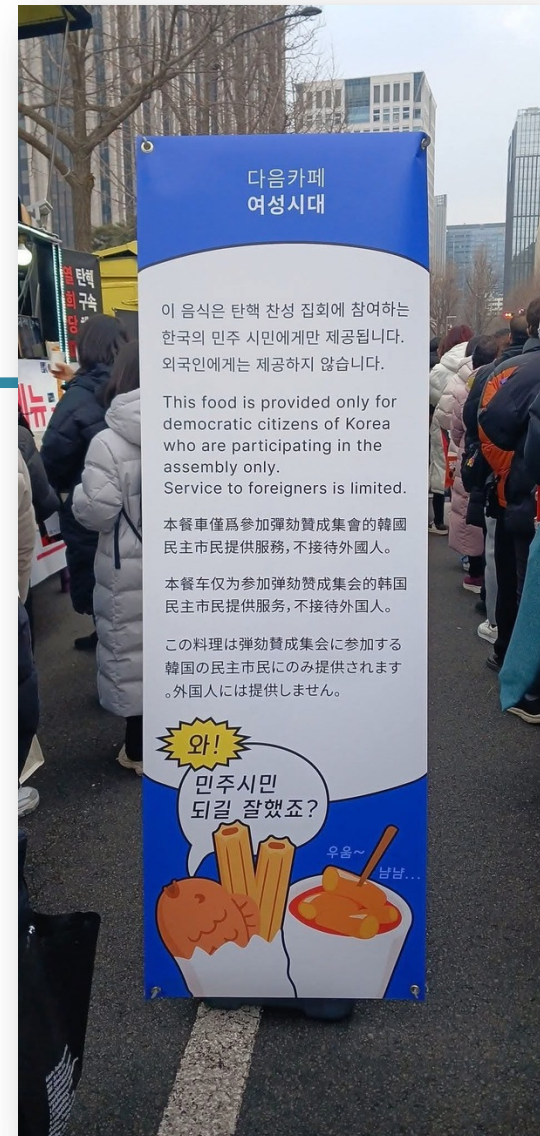
정체성 정치를 발판으로 한 연대의 정치



남태령 대첩에 등장한 팔레스타인 국기와 프라이드 플래그 by 이영석 (2024.12.21-22)

반-차별금지법그룹 및 트랜스 배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와중

2015년의 메갈리안 미러링,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2015년의 페미니즘 리부트

11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 페미니즘 리부트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요” 애국 소년 이승복의 한아디를 닮은 이 말은 ‘어느 날’ 터키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한 고등학생의 일갈이다. IS에 가담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미디어에 의해 ‘김 군’으로 불리는 이 고등학생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단지 그의 SNS 계정에 터번을 두른 친구들이 가득했다는 정도뿐. 의문점은 이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이 도대체 김 군에게 뭘 어쨌기에 ‘차라리’ 그 무시무시한 IS를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을 선택했을까? AK-47로 백화점에 총격을 가하고, 인질을 참수하는 끔찍한 동영상들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리비아 호텔에 자폭 테러를 행하는 IS보다 ‘어째서’ 페미니스트가 더 싫다고 말했던 것일까?

21세기는 온전히 페미니즘의 시대다. 남녀평등은 이제 구호를 떠나 상식이 됐다. 여성 대통령도 낯설지 않다. 이혼은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만든 남성은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이름 되면 페미니즘은 이제 편의점의 물티슈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무엇이 되었다. 여기서 다시 의문이다.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공동 분할과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근육이 발달한 남성들이 산업 구조상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받았다. 사회는 남성의 근육을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여성과의 불평등을 조정했다. 공장으로 남성을 유입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그 돈으로 여성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무뇌아적인 남성들이 전면에 도열해 있지만 결국 빅 브라더는 공장으로 지향되던 초기 자본주의였던 셈이다. 비겁한 변명이 아니다. 역사책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현재의 페미니즘은 뭔가 이상하다. 아니, 무뇌아적인 남성들보다 더 무뇌아적이다. 남성을 공격해 현재의

황실수설 떠들어댄다. 그곳에 자칭 페미니스트들과 남성주의자들이 득실거린다. 무너만 그렸다.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다. 상대의 뺨이 내 뺨보다 크다면 그 뺨을 내놓으라고 식탁에서 싸우는 어린애들이다. 봉준호의 역작 <설국열차>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엔진 칸을 점거하기 위해, 아니 정확히는 엔진 칸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빼앗기 위해 꼬리 칸 사람들은 화성을 감수하며 돌진한다. 그러나 마지막 칸 앞에서 송강호가 연기하는 남궁민수는 말한다.

“난 앞 칸엔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저 앞문을 날려버리는 거야.” 송강호의 대사는 <설국열차>가 가진 문제의식을 정확히 알려준다. 문제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난 앞 칸엔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저 앞문을 날려버리는 거야.” 송강호의 대사는 <설국열차>가 가진 문제의식을 정확히 알려준다. 문제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12



“이준석은 성차별로 이득을 본 산업화 세대 남성과
역차별로 손해를 보고 있는 2030 세대 남성을 대비하
여 성별에 이어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상상적 대결 구
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주희, <돈 되지 않는 몸을 가진 남
성-피해자들: 자산 불공정 감각과 여성-불로소득자 담론>)



이준석 ✓

1일 • 🌐

핫도그 구워서 손으로 집어먹는 캠핑은 감성캠핑이 아니라
정신나간 거지.

우리동네 GS25는 점주가 "오토케 오토케"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절한다고 해서 점주 교육시키고
불이익 주겠다는 이야기 하던데, 그 똑같은 회사가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책임자에 대해서 어... 더 보기



감성 캠핑 이벤트 이미지에 대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감성 캠핑 이벤트 이미지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GS25 5월 스텝트 캠프 이벤트 "감성 캠핑 필수템 받고 캠핑 가자!"에
관심 가져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이벤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캠핑을 주제로
고객님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캠핑을 시도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감성 캠핑 이벤트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일부 도안이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릴 여지가 있는 이미지라고 판단하여 즉시 디자인을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열어 문구는 포털사이트 번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미지 또한 일출된 후로 사이트에서 "열어 문구", "열어"가 기획되었던
디자인 소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감개 받아들이고,
앞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더욱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하겠습니다.

감성 GS25 5월 이벤트 디자인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5월 2일
GS25 올림

1,752

댓글 492개 • 공유 46회

👍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Jungkwon C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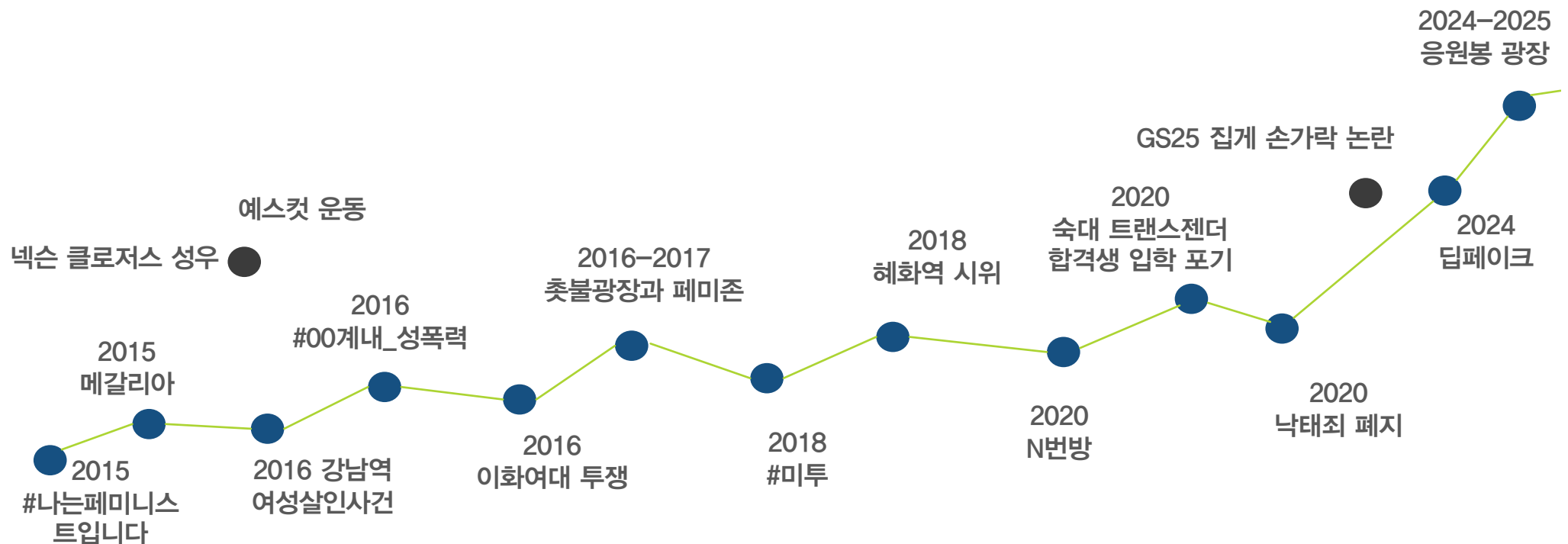
소추들의 집단 히스테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

좋아요 답글 달기

21 🤔👍

온라인, 해시태그, 그리고 페미니즘 제4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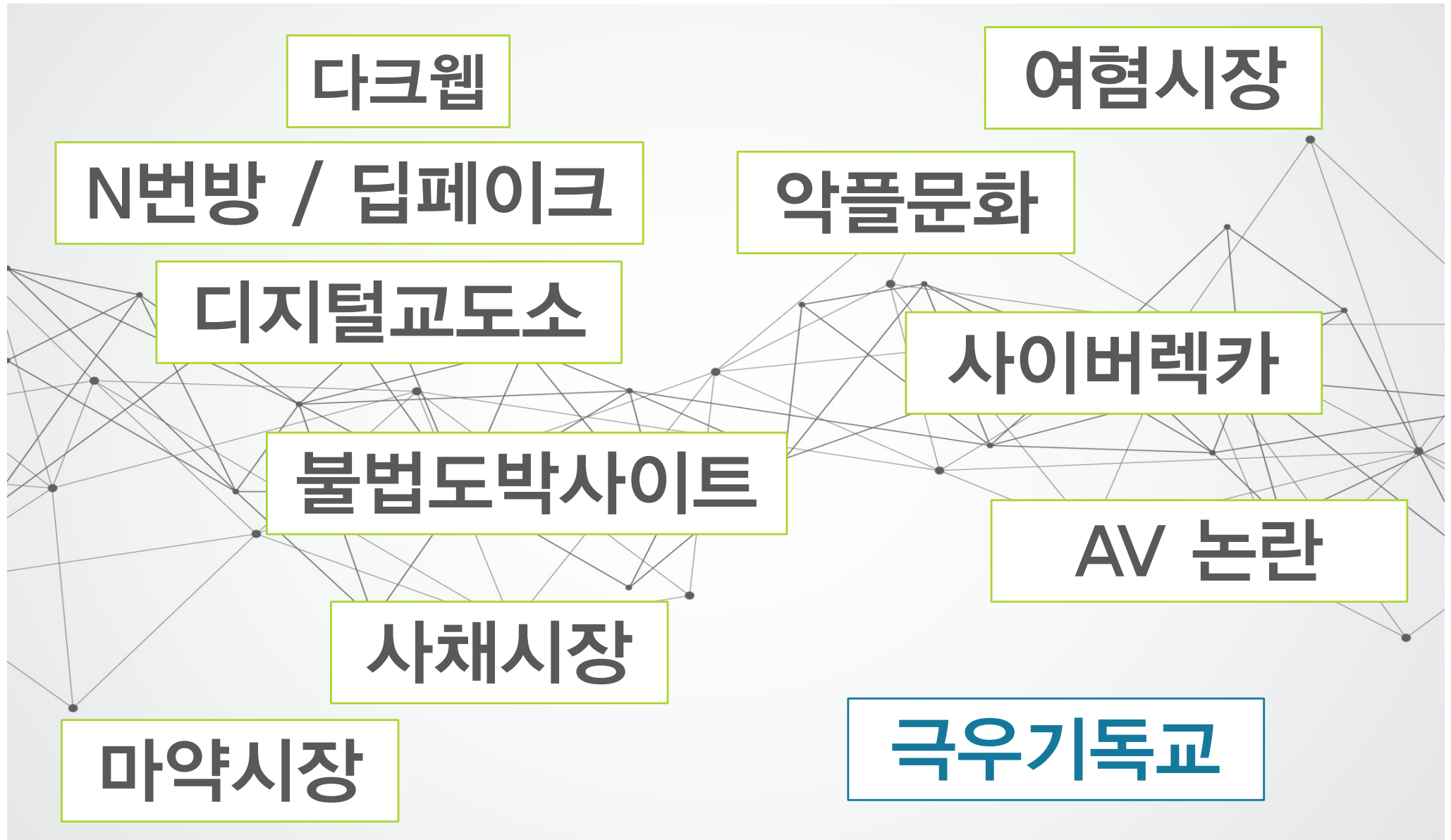
(1) 대중문화와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은 이들이 (2) 온라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와의 조립을 통해 (3) 전지구적으로 국경을 넘어 상호연대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확장되는 대중 페미니즘 운동으로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성폭력, 남녀동수제, 낙태죄 폐지 등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5)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젠더의 교차성을 강조하는 흐름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페미니스트 기억:
광대한 네트를 부유하면서 축적
되어 온 저항의 기억들





정체성 정치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게 특별히 청년 남성의 문제인가? 역사적인 폭력의 현장에 남자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지난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나온 이 논평은 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는 그저 지금껏 반복되어 온 “남자는 원래 그래(boys will be boys)”의 변주에 불과하다. 폭력 행위의 동기를 ‘남성적인 것’으로 자연화하는 오류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그 폭력성에 ‘남자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기 보단, ‘남자로 각성하는 과정’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어긋난 정체성 정치에 있다. (〈한겨레21〉 칼럼 중에서)

그리고 몸의 문제

몸의 문제는 비물질적이지도 가상도 아니다

둘 다 직접적으로 신체를 연루시킴으로써 신체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을 강화시킨다. ‘가상의 유희’로 여겨지는 딥페이크조차 ‘이미 실현된 것’으로서 여성의 신체 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다.

딥페이크에 활용되는 것은 여성의 얼굴과 이름뿐이 아니며 그 얼굴과 합성되는 신체 역시 여성의 신체다.

딥페이크는 (1) 여성의 구체적인 얼굴과 몸을 합의 없이 착취하고 (2) 여성의 실존을 공격하고 인간됨을 박탈하기 위해 제작되며 (3) 그 여성이 몸담고 있는 물질성을 띤 공동체 안에서 유통되고 (4) 시장에서 이윤을 실현하며 (5) 21세기의 버추얼은 개개인의 삶이 기거하는 물질적인 공간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아시아 여성의 몸 (feat. <페미문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 유튜브, 그리고 데일리모션에 걸쳐 총 85개의 딥페이크 채널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착취적 콘텐츠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20%), 일본(10%), 영국(6%), 중국(3%) 순이었다. 그 외에도 인도, 대만, 이스라엘 등의 국적이 포함되었다.

특히,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상위 10명의 인물 중 8명이 한국 여성 가수였다. 또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99%에서 여성이 주요 대상으로 등장했다.

아시아 여성 신체 이미지의 빅데이터
– This is HISTORY

“여자라서 죽었다”

진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조건, 즉 섹스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신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별화된 신체는 투쟁과 저항의 중심 지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여성을 세력화하려는 **정체성의 정치학과**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 정체성
간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가?”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2000)

가부장제 :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작동하는
시스젠더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며
비장애인 남성 중심적인 성적 체제

성적기관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가르고,
정상 안에서는 위계를 가름으로써
‘정상남성’ 을 보편자의 위치로 올려놓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세력화와 횡단의 정치

